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강림절 제4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117. 만 백성 기뻐하여라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세상의 소란에서 벗어나 주님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에 등 떠밀리며 살다보니 어느덧 연말입니다. 파도가 스러진 자리에 남은 물거품처럼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곤 회한과 부끄러움뿐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탕자를 얼싸안았던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성년의 숲을 어린아이처럼 방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찬 우리 마음을 비우고 또 비워 주님 모실 자리를 마련하게 해주십시오. 녹진녹진한 우리 마음을 하늘 바람에 날려 말리게 해주시고, 임의로 부는 성령의 바람을 따라 춤추며 살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세상의 움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시121:5-6 인도자

♠ 교 독 문 57. 성탄절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광권희 집사 II. 구성실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91.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함께

성경봉독 I. 눅2:8-14 인도자

II. 눅1:34-38 박효선 권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거친 곳의 그리스도 김재홍 목사

II. 움돋이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찬 송 421. 나는 갈 길 모르니 다함께
 봉 헌 다함께
 ♠ 봉 헌 송 69. 나 가진 모든 것(1,2)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새로운 세상은 ‘나’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을 밝히는 작은 등불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비록 약하고 추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지향들을 극복할 힘을 주십시오. 선물로 주어진 시간 여행을 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증언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 결단의 찬양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세례식/성탄축하순서	성서로 배우는 평화/김기석 목사
아름답도다, 형제자매의 사랑!	기도 : 권미정 집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성운 전도사 김기석 목사	김민주 선생 윤석철 장로	인도자 윤성중 집사

12월	영접위원	조병무 김훈동 정원석 안정숙 유경순 김현영
	헌금위원	윤석철 홍순구 김중수 이순정 박혜경 백혜숙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내는 편지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온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당신은 예기치 못했던 것을 생활하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당신 혼자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현존의 빛나심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당신 인생의 의미가 있으니, 언제까지나 영원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받아 이번에는 당신도 사랑해서 죽기까지에 이른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기도 중에도 투쟁하는 중에도 사랑을 잃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파괴적일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남을 위하여 불 속에 뛰어들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신은 아십니까? 목상과 투쟁은 꼭 같은 근원에서, 사랑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당신이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사랑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착취당한 이들의 존엄성을 되찾아주고자 투쟁한다면, 그것 역시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 길로 나서기로 동의하겠습니까? 사랑을 위해 목숨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를 생활하겠습니까?.....

오 그리스도여, 주님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은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게 모험의 길을 터주십니다. 주님은 앞장서서 성덕의 길로 나아가시는데, 거기서는 사랑을 위해 죽는 자가 행복하며, 순교가 최후의 대답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아니’라는 말을 주님은 날마다 ‘예’라는 말로 변형시킵니다. 주님은 내 생의 부스러기들을 원하시지 않고 내 생활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주님이야말로 밤낮으로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더듬거림은 기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주님을 부르지만 해도 우리는 온전히 일치하게 됩니다.

주님은 매일 아침 내 손가락에 탕자의 반지, 축제의 반지를 끼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망설였습니까? 나는 “주님의 영광을 아무 쓸모 없는 것들과 바꾸었던 말입니까? 맑은 물이 솟아오르는 샘을 버리고 금이 가서 물이 고이지 않는 빗물받이 웅덩이를 파려 했습니까?” (렘2장)

주님은 지치지 않고 나를 찾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는 내 일을 할 시간을 달라고 하며 또다시 망설였던가요? 일단 쟁기를 잡고서는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주님을 따르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주님을 뵈는 적이 없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복음서에서 조금이나마 이해한 것을 생활하라. 네 생활을 선포하라. 땅에 불을 지르라.....너는 나를 따르고.....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돌이키지 않을 결심으로 자신을 바치라고 촉구하고 계심을.

--호세 발라드, <<떼제 이야기>> 중에서

나눔의 삶을 위하여

♣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소비욕에 저항하십시오. 많이 구입할수록 더욱 아쉬울 뿐입니다. 당신 자신이나 자녀들을 위해 비축하기 시작하는 것이 불의의 시초입니다.

♣ 당신의 집을 언제나 환영하는 곳이 되게, 또 평화와 용서의 집이 되게 하십시오..... 사람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십시오. 축제의 정신은 음식을 많이 차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박한 마음가짐에 있는 것입니다.

♣ 경력이나 경쟁이, 그리고 고액의 봉급이나 소비성향에 대한 욕망이 노동을 하는 근본이유라면, 당신은 머지않아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당신 자신을 착취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갖추기 위해서 일하되, 결코 더 축적하기 위해 일하지 마십시오.

■ 마/음/으/조/워/는/글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일터

나는 마치 군마(軍馬)의 걸음걸이를 시험해 보듯이
내 육체의 역량을 시험한다.

내 몸을 날쌔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항상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한다.

나는 내 몸을 단련시키면서 또한 내 몸에
연민을 보낸다. 내게는 다른 군마란 없으니

나는 내 머리가 초롱초롱하게 깨어 있어,
자유롭고, 가차없이 싸울 수 있도록 한다.
그리하여 모든 빛이 육체의 어둠을 삼켜버릴 수 있도록.
내게는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다른 일터는 없기에.

나는 내 마음이 용맹스럽게 쉼 없이 불타오르도록 한다.
나는 내 마음속에 온갖 소요와 모순들,
삶의 기쁨과 슬픔이 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나는 그것들을 내 마음의 리듬보다도 거칠고,
이성의 리듬보다도 뛰어난, 우주의 상승의 리듬에
복종시키려고 몸부림친다
(니코스 카잔차키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한완신 임정자 김준호 곽해자 김윤수 김혜권 배근수 김금순 박병구
 박창운 임허정윤 이봉옥 정완수 김재광 홍복선 홍순구 안홍숙 장민숙
 박시내 권미숙

월정헌금:

권미정 김수연 배부례 박병구 이광섭 이정은 전영규 김경수 전영자
 조항범 오현정 하현철 최성애 김지현 김지은 문홍일

감사헌금:

양재성 임미심 윤석철 장혜숙 박정숙 김용태 권 순 이종현 이성운
 김종철 김종문 조항범 배삼순 권호천 정현창 고재중 오정숙 박병구
 무명4

캄보디아 우물헌금: 문금석 신윤정 이광섭 김수연 최윤선 윤주원
 유경순 조문규 박영이

100주년 기념헌금 : 윤석철 장혜숙 방문성 박혜경 김진경 송동준
 정완수 김재광 이은자 (100주년 헌금 누계: 136,460,000원)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장 혜 숙	장 혜 숙	쉽	쉽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이 춘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갈 릴 리	안 정 숙	박 애 순		
베 다 니	박 홍 재	곽 권 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김 금 순		
빌 립 보	이 형 숙	권 미 숙		
가버나움	안 홍 숙	오 현 정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갈라디아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성탄행사** : 오늘 오후 2시부터 성탄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시작 전에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2. **성탄감사예배** :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성탄감사를 드립니다. 찬양대의 칸타타와 함께 합니다. 불우이웃과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 드리는 헌금을 정성껏 준비해주시시오.
3. **임원교육** : 지난 당회에서 새롭게 임원으로 선출된 이들(집사, 권사)은 중구용산지방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일시: 12월 27일-28일, 오후 6시 30분 장소: 정동제일교회
4. **새교우환영회** : 다음 주일(30일) 예배 마친 후 친교실에서 금년 하반기에 우리 교우가 되신 이들을 환영하는 모임을 갖습니다.
5. **변경** : 새해부터 헌금은 헌금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시오. 감사의 내용은 계속해서 적으십시오.
6. **설거지 도우미** : 설거지 도우미 신청 받습니다. 청년들과 남선교회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서의 해당 주일에 표시해주시시오.
7. **주소록** : 전화번호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전화번호가 변경된 분, 혹은 잘못 기재된 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시오.
8. **축하** : 김문주 성도가 원효로에 <아름다운 어린이집>을 짓고 오늘 오후 4시에 개원감사예배를 드립니다.
9. **신앙실천** : 12월 29일은 생물종 다양성 보호의 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절약과 절제의 삶을 택하는 것입니다.

* 식당 봉사 : 베다니 속

* 캄보디아 우물 기부 신청자 : 류준모 김주희

< 새교우 소개 >

2743 구자훈 소속: 5남선교회

2744 김혜란 소속: 8여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